

'GM 10억 달러 요구' 먹튀 가능성 제기

군산공장 폐쇄설 다시 수면위... 정부에 지원 촉구 박재만 의원 "노동자들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도·도의회·군산시 중심 대응 태스크포스팀 구성

지난해부터 불거진 한국GM의 국내 철수설이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였으나 최근 지엠 군산공장의 폐쇄설이 다시 대두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국GM 군산공장은 지난해 12월 가동중단을 했다가 지난달 하순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이번달 중순부터 3월까지 다시 가동중단에 들어갈 예정으로 4월 이후 재가동 계획이 불

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GM이 우리정부에 10억달러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 호주 GM 사례와 같이 먹튀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6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재만(군산1)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해 임금협상과정에서 나온 연간 20만대 규모 수출물량 신차 배정을 조건으로 한국정부에 10억달러

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자본집약 상태인 한국GM을 회생시키기 위해선 추가 생산에 따른 공장증설, 차입금 상환 등 투자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일부 부담해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GM의 해외공장 사례를 보면 GM은 공장폐쇄 이후 노동자들을 고사시킬 우려가 크다는 게 박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GM호주공장은 2011년 호주 정부로부터 10억 달러를 지원받으며 2022년까지 철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2017년 10월 이러한 약속을 깨고 공장폐쇄를 단행한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건없

이 GM의 10억 달러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호주와 같이 먹튀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 결과 노동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북도를 상대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일, 박 원내대표는 전북도 최정호 정무부지사 및 GM군산공장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갖은 뒤 곧바로 전북도, 군산시, 도의회 및 군산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GM군산공장 폐쇄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상안에 있어 반드시 군산공장 회생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최악의 상태에는 매각까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중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6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농업회사법인(주)사조화인코리아, 호주 에이씨엠 코리아(주) 투자협약 체결식에 송하진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협약 체결식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주 사조화인코리아 대표이사,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 송하진 도지사, 벤포터 호주 에이씨엠 코리아, 유석태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도, 수출주도 기업 2개사 유치

특장차 제조기업 '호주 에이씨엠 코리아' 등 투자협약

전북도는 6일, 도청 접견실(4층)에서 김제시에 투자하는 특장차 제조의투기업인 호주 에이씨엠 코리아(주) 벤포터 대표이사 등 2개기업 대표와 송하진 도지사,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 협약 내용을 보면 기업은 차질 없는 투자, 공장설립과 가동, 전북도민의 고용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도 및 김제시에서는 공장설립에 따른 인허가의 신속한 지원과 공장설

립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애로나 민원해결,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 상호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체결한 첫 투자협약으로 새해 도민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투자협약은 투자 규모만 1,350억원이고, 고용창출은 610명이다.

이번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각 기업별 투자계획을 다음과 같다.

농업회사법인(주)사조화인코리아는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일원에 부

지 1만7,915평을 매입, 1,200억원을 투자하여 오리, 닭 가공공장을 증설, 신규고용은 550명이다.

호주 에이씨엠 코리아(주)는 외부기업으로 김제자유무역지역에 1만평 규모로 150억원을 투자하여 특장차(크레인제조, 고가차 등)를 생산해 호주와 유럽에 수출할 계획, 신규고용은 60명이다.

또한 특장차 산업 집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특장차 전문단지 확장도 김제시와 함께 추진하여 특장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특장차 산업과 연계하여 새 정부의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육성의 전기가 보급확대 정책과 부합하는 전기자동차 산업도 선점하기 위해서 관련 기업 및 부

업을 도내로 유치하여 전라북도를 특장차 및 전기차 산업의 허브로 차근차근 조성하여 산업 집적화를 이뤄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위 2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와 김제시는 본사 및 생산 공장 등을 10여회 방문해 전라북도의 투자여건 등을 설명하면서 도내로 이전하도록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로 이와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송하진 도사는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치하며,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유치하는 전라이 필요하다"고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맞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미래 먹거리 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도와 시군에서도 행정·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설명절 제수용품 싸게 사는 꿀팁

전통시장서 구매 시 대형 마트보다 10만원 저렴 전북도, 전통시장 찾아 대대적 장보기 행사 진행

전북도는 경기침체와 대형마트 입점, 극심한 한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6일 부안 상설시장에 직접 찾아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지역민들에게 "설 명절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민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에는 부안군과 전라북도상인연합회, 지역여성단체 등 100여 명이 모여 장보기 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이용 홍보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전통시장의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도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기간 동안 각 실국원 등 공무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갖고 도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설 명절에도 전주 중앙시장 등 결연을 맺고 있는 도내 8개 시장에서 전 소속 부서에서 장보기 행사를 했다.

도는 도내 시·군을 비롯 유관기관·단체, 상인연합회와 함께 도내 63개 전통시장에서 도민들의 설맞이 장보기를 유도하기 위해 특관·할인행사는 물론 각종 볼거리 제공 등 공동 마케팅을 펼치기로 했다.

농협과 전북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 14곳에 판매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오는 14일까지는 개인 구매한도를 1인당 최대 월 50만원까지로 늘리고 할인율도 종전의 5%에서 10%로 상향해 할인해 판매하기로 했다.

도내 각급 기관과 단체, 기업체가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액의 3%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대목이 최근 극심한 한파로 얼어붙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설 명절 기간에 대형마트보다 제수용품을 10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율과 구매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우리 도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알뜰하게 설 명절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지사·교육감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열어

도선관위, 선거법 안내 등 "선거준비 차질없도록" 강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6일 오후 2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4층)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방법 ▲선거비용 회계처리 방법 ▲제한·금지사항 및 위반

사례 등에 대한 안내와 관계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후보안내 설명회에 참석하여 법적 절차나 선거운동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안내 받아 선거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관역·기초의원 등의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는 각 관할 선관위에서 실시된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